



75

전기제조서비스업 발전부의 중앙제어실 모니터 감시 업무작업자에서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42세 | 직종 | 모니터감시작업 | 직업관련성 | 낮음 |
|----|---|----|-----|----|---------|-------|----|

1 개 요

홍○○(남, 42)는 1982년 2월 H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발전운전원 및 전기설계원으로 근무하다 2001년 5월부터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 감시 업무를 하다. 2002년 1월 경부터 목,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후 2003년 4월 동일 부위의 통증으로 G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업무의 주 내용을 보면 3대의 CRT화면을 중심으로 전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 또는 수리, 점검작업시 키보드와 콘트롤 패널을 통한 입력작업을 수시로 수행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 작업공간의 3대의 CRT 화면과는 별도로 위치한 또 다른 3대의 CCTV 화면을 매시간 점검하고 화면조작을 위한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 감시작업은 작업 개시 및 작업 종료 시점(30분~1시간)에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CRT 감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23도의 신전이 발생하며 일 평균 900~1,000회의 입력작업이 이루어진다. 작업대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업자가 상체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입력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자세에서 입력작업이 이루어진다.

3 의학적 소견

어려서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또한 2001년 9월에 우측 팔의 통증과 손의 감각저하로 ‘우 척골신경 압박증후군’으로 S병원에서 수술(척골신경 감압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 2002년 1월경부터 목,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3~4회 치료한 이후, 2003년 4월 동일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G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다발성의 추간관 변성과 특히 C6-7에 대한 좌측의 신경근 압박이 미만성으로 존재하였다. 흡연력은 20년 동안 하루 15개피 정도 흡연하며, 취미 생활로는 낚시와 베드민턴을 자주 한다.

4 결 론

홍○○의 경추간판탈출증은

- ① 중앙제어실에서의 수행하였던 모니터 감시 업무가 인간공학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과, 과거의 업무에서 VDT 작업 등을 통한 경추부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 ② 모니터 감시 업무의 작업기간, 신전자세 상태에서의 작업시간, 신전자세가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의견과,
- ③ 의학적으로 볼 때 경추부의 전만곡선이 소실되고 다발성의 경추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추부의 신전자세보다는 신체의 퇴행성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모니터 감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